

광장에 대한 공론의 생성과 공간적 반영

- 여의도공원, 서울광장, 광화문광장을 대상으로 -

안진희* · 배정한**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조경학 전공 · **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I. 서론

본 연구는 1998년, 2004년, 2009년을 기점으로 변화가 일어난 여의도 공원, 시청광장, 광화문광장을 대상으로 공간의 기능과 형태가 변모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공론을 파악하고, 이러한 공론들이 공원 또는 광장이 만들어지는 데 미친 영향력을 분석하며, 이전의 공간의 형성 과정에서 발생한 공론이 형태적으로 반영되는 양상을 진단하고자, 신문과 전문 월간지를 분석했다.

신문은 판매량이 가장 많은 신문인 조선일보 지면의 기사, 칼럼, 독자의견을 분석했다. 각 장소의 변화 계기가 된 사건의 시점부터 공간이 완성되어 개방된 시기(여의도공원: 1996-1998, 서울광장: 2002-2004, 광화문 광장: 2006-2009) 사이에 세 장소와 관련된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기사를 범위로 삼았다. 전문 월간지의 경우 『환경과조경』과 『SPACE』의 전문적 비평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II. 연구의 시각: 공론장의 확장

하버마스에 따르면, 여론 형성 공간으로서의 공론장은 “공적 실체로서의 시민들이 국가라는 형태로 조직되어 있는 지배적 구조에 대응해 비공식적으로 실천하는 비판과 통제의 과업”(Habermas, 1974: 49)을 수행하며, 공론장이 작동하는 관심사는 공공 이슈에 관한 의사결정 등 공적인 것이다. 공론장은 공적 영역이며, 사회화된 사람들 사이의 실천적 행위와 의사소통 관계를 지칭한다(김연근, 2004: 13). 한편, 비평 저널은 문자 세계의 공론장, 추상적 공론장이라 할 수 있으며, 문화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였다(Forester, 2001: 64). 실제로 18세기의 태틀러(Tatler)와 스펙테이터(Spectator)와 같은 영국 정기간행물에서의 논의들은 풍경화식 정원의 태동에 영향을 미쳤다. 앞서 이론을 기반으로 본 연구는 신문 기사, 전문 월간지의 비평을 연구 대상지와 관련한 각종 여론의 함으로 보았다.

본 연구는 공론을 다음과 같이 분류했다. 먼저 여의도공원,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각각에 대한 1)배경(공간 변화의 계기), 2)형태(공간 설계 개념, 결과물의 주요 구성 요소, 위치 및 교통),

3)이벤트(공간 내 및 주변부의 시민 활동 양상과 각종 사건, 공간 사용 규칙, 공직자의 발언)을 주요 쟁점으로 분류하여 신문과 전문 월간지에서 이에 대해 어떤 내용을 다루었는지 분석했다. 다음으로 각 공간별로 형성되었던 공론이 그 다음 시기에 만들어진 공간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영향을 받은 공간은 어떠한 특성을 띠었는지 해석했다.

III. 공간의 변화 과정에서 주요 공론

1. 광장에서 공원으로: 여의도공원(1996-1998)

- 1) 배경: 1994년 ‘여의도지역 재정비구상 및 광장지하개발 기본 계획’의 일부로 처음 계획되었고, 이후 ‘공원 녹지확충 5개년계획’으로 편입, 서울시 녹지 확충 사업의 공간으로서 알려졌다.
- 2) 형태: 한국의 고유성 또는 전통을 구현하려는 노력이 나타났고, 마당 개념을 도입하여 기존 광장의 기능을 전통적 개념으로 변환했다. 또한 세종대왕 동상을 설치하고, 공군 측의 요청으로 공군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할 것임을 발표했다.
- 3) 이벤트: 여의도광장 공원화 사업에 의해 광장이 사라진 것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의 유감 표명과 더불어, 여의도광장의 기능과 상징성 삭제의 타당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2. 교통광장에서 광장으로: 서울광장(2002-2004)

- 1) 배경: 서울시는 1995년 서울시청 앞 광장화를 포함한 서울 상징거리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교통 처리에 대한 우려로 보류되었다(이경은, 2009: 78). 이후 2002년 시청 앞 월드컵 응원을 계기로 ‘차 없는 시민광장’ 조성계획이 진행되었다.
- 2) 형태: 이는 대대적 교통 체계 개편이 따르는 작업이었으나, 우려되었던 교통 체증은 일부 구간의 정체를 제외하고는 원활한 상황을 보였다. 최초 광장 당선작은 정보화와 테크놀로지를 내세워 “바다 LCD를 통해 형태 중심적 설계를 극복”(배정한, 2003: 70)한 ‘빛의 광장’이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를 변경, 대청마루에 둥근 보름달이 걸린 모습을 형상화한 원형 잔디광장을 조성했다.

- 이벤트: 답압에 의한 잔디 훼손으로 인해 광장의 제한적 이용이 나타났다(조수연, 2004: 110-111). 한편, 이 시기 시청 앞은 대규모 집회가 급증했다. 이에 특정 단체의 광장 사용 규제에 관한 공론이 등장했고, 단체 행사시 사용료 부과 안이 마련됐다.

3. 도로에서 광장으로: 광화문 광장(2006-2009)

- 배경: 1994년 서울상징거리 조성계획은 교통 흐름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에 의해 보류되었다. 이후 2006년 '서울역사도시 조성계획안'을 통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의 추진이 결정됐다.
- 형태: 서울광장과 같은 교통 문제의 우려가 있었으나, "서울의 대표 거리라는 위상에 맞지 않게 너무 차량 중심적이어서 삭막한 느낌을 주는 게 사실"(정지섭, 2006)이었던 세종로의 광장화는 육조거리의 역사를 부활시키는 일일 뿐만 아니라, 차보다 사람을 우선시했던 관례를 바꾸는 기회로서 인식되었다. 설계안은 비움을 통한 평면성 확보와 동시에 광화문광장의 대표성에 걸맞은 구성 요소에 대한 관심이 여러 동상 설치 여부를 통해 나타났다. 개장 이후에는 "정성껏 가꾸진 꽃밭을 시위대가 함부로 훼손하지 못할 것이란 꽃의 정서순화 기능을 기대한다"(박승혁, 2009)는 취지를 토대로 플라워카펫이 추가되었다.
- 이벤트: 서울시가 집회나 시위 목적의 광장 사용은 불허하기로 관련 법안을 상정하면서, 집회·시위 불가 이슈에 관한 공론이 등장했다(곽창렬, 2009). 조성 진행 단계에서부터 제기되었던 집회에 대한 우려에 광장의 개장과 동시에 대응한 것이다.

IV. 공론의 공간적 반영

서울의 대표적 공간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아 각 공간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공론은 다음과 같이 다른 공간에 다시 반영되었다. 먼저, 최초의 서울상징거리 계획(1995)은 교통 문제로 보류되었으나 서울광장 조성 이후 그 안정성이 확인되어, 이후 마찬가지로 차로에 편입하는 형태인 광화문광장(2009)이 원활히 계획되는 데 기여한 선례가 되었다.

여의도광장의 공원으로 인한 대형 도시 광장의 부재는 서울광장을 만드는 타당성 있는 촉진제 역할을 했다. 도시 광장 부재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서울시청 앞 월드컵 응원은 이곳이 새로운 광장으로서 형성되는 데 대한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서울광장 조성 당시 일어난 다수의 대규모 집회는 이후 신설될 광화문광장에서의 집회 또한 예측하게 했다. 이로서 조성 완료 이전에 광화문광장의 사용료 지정과 집회 불허 법안 상정이 이뤄졌으며, 넓은 플라워 카펫을 설치하여 빈 공간에서 기대할 수 있는 활동들을 차단하고자 했다.

한 번의 공원과 두 번의 광장화, 이들은 각각 조성 당시 지향했던 가치의 공간적 형상화를 의미한다. 군사 정권의 역사를

회색하고, 사용 권한의 폭을 넓히고자 한 여의도공원, 현대적 서울을 형상화한 서울광장, 육조거리의 역사를 부활시키고자 한 광화문 광장, 이 세 장소의 변화를 통해 제시된 대표적 가치는 각각 계층의 평등화·한국의 현대성·역사성의 회복이었으며, 이들은 각 시기에 추구된 이념의 구현이라는 반복성을 지닌다.

그러나 각각 다른 가치를 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세 공간 모두 수직적 요소의 도입으로 귀결된 공통점을 보인다. 각 시기가 추구한 이념을 공간에 구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세 장소는 상징화에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요소 - 상징적 모뉴먼트, 또는 전통적 개념의 시설과 식재 - 를 도입했다. 결과적으로, 서울의 대표적 공간이라는 상징성 그리고 '광장'이라는 형태적 기대 간의 충돌은 결국 또 다른 빈 공간의 필요성을 예측하게 한다.

V. 결론

도시는 유기적이기에 장소 고유의 기능을 삭제했을 때, 삭제되었던 기능을 다른 장소가 대신하는 연쇄작용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 대체된 장소가 담당했던 본래의 역할은 예상치 못한 계기에 의해 전혀 다른 곳에서 튀어나온다. 서울은 과밀화된 도시를 운용하면서 의도치 않은 도시의 확장을 겪어왔다. 위 세 공간에 얽힌 여러 공론은 앞서 말한 서울의 예견되지 않은 공간 기능의 변동과 확장, 그리고 이에 따른 담론과 논쟁의 실례이다.

서울의 광장들은 광장에 대한 형태적 기대보다도 도시의 대표적 공간에 요구되는 개념을 모두 도입할 수 있는 준비된 평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광장의 평면성은 장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개념을 도입할 수 있는 편리한 형태로 작동되었다. 이는 '광장'이라는 용어에 기대하는 형태에 대한 지속적인 불이행이다. 광장이 연상시키는 형태적 요구에 이해관계·의식이 동의하지 않음으로써 서울의 광장에는 장식적인 형태와 갖가지 요소가 도입되었다. '광장'이기에 도전받는 것들이 많다.

참고문헌

- 곽창렬(2009) 광화문 광장만은 시위 없는 공간으로. 조선일보 8월 5일: 8면.
- 김연금(2004) 서울시청 앞 광장조성 관련 공론장에서의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32: 11-22.
- 박승혁(2009) 광화문광장, 시민들 품으로; 내일 일반에게 개방 꽃 224만 537송이 심은 '플라워 카펫' 등 선보여. 조선일보 7월 31일: 24면.
- 배정환(2003) 서울시청 앞 광장조성 현상공모를 둘러싼 반응에 대한 일곱 가지 생각. 환경과 조경 179: 70-71.
- 이정은(2009) 육조거리에서 광화문광장까지 연보. Space 502: 78-79.
- 정지섭(2006) 광화문 앞에 '세종광장(가칭)' 만든다; 16차로중 6차로 없애 '시민 명소'로. 조선일보 9월 28일: 14면.
- 조수연(2004) 서울광장, 개장은 했지만. 환경과 조경 194: 110-111.
- Forester, J.(2001) The Deliberative Practitioner. Massachusetts: The MIT Press.
- Harbermas, J.(1974) The public sphere: An encyclopedia article(1964). New German Critique 3: 49-55.